

“연세의 연세다움을 위하여”
연세노동조합 협의회

수신자 : 연세대학교 총장선출제도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제 목 : 총장선출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에 대한 연세노동조합협의회의 의견

1. 연세대학교 총장선출제도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대 연세대학교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제시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 직원참여 2인이 총장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재단본부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3.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총장선출제도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2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연세대학의 3주체인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연세의 미래를 책임질 총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총장후보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을 통하여 총장후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후보의 인품과 업무추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총장선출제도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을 일부 수용하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이사회에 전달하여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원 참여 보장을 제안합니다.

■제19대 총장선출과 관련된 총장추천위원회 및 공론화 평가단 직원 참여

가. 총장추천위원회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노동조합,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신촌산학단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원주산학단지회,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주연세의료원지부 대표자 각1인, 총 6명 참여

나. 공론화 평가단 : 연세재단 전 직원 20% 참여

연세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기안자 집행위원장 진 기 숙

의장 권 미 경

협조자

시행 연노협 2019 - 4 호 (2019. 5. 20) 접수

(2019. 5.)

우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http://cafe.daum.net/yutuc>

전화 (02) 2228-9403 전송 (02) 393-6877

/ ginggy@naver.com / 공개